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1주년 추모식

추 모 사

-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31주년 탄신일을 맞이하여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독립유공자묘역의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자강, 해방 후 나라세우기의 위대하신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
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
에 남시욱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
(略傳)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
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해방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
(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민주건국을
위하여 몸바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
서 이끌어 가시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
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평생 친구요 동지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
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시면서 지조와 경륜, 애국심을 겸비한 선생님의 독
야청청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평생의 동지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초대대법
원장께서도 평소에 고하선생을 조선시대에서 이윤곡과 함께 가장 존경할 인물이
라고 말씀하시었고 가인은 임종의 순간에도 고하선생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
셨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 2천만 민중은 누구든지 국권회복을 위한 기회가 오면 한 몸 바칠 각
오가 되어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로 눈을 돌리면 만주벌판에서의 무
장독립투쟁을 하신 선열들,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 품찬노숙을 마다않고
몸바치신 애국지사들, 노령이나 연해주 등지에서 활약하신 지도자들, 미주와 유럽
에서 일제의 불법 강점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앞장 선 선각자들을 잇을 수 없습
니다. 그런데 해외 여러 곳에서 치열하게 추진되어 온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은 국

내에서 이에 호응하여 연결해주고,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해주고, 귀한 인쇄용 한글 활자를 보내주며 해외독립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린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들도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인사들이었습니다.

오로지 굴종과 착취만이 강요되던 조선내의 독립운동의 중심점에는 고하선생이 우뚝 서 계십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을 도모하고 출옥 이후에는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항일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18년 가을부터 월슨대통령의 민족자결론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중앙학교 숙직실을 본부로 삼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현상윤, 김성수, 그리고 현상윤을 통하여 그의 은사인 최린과 동지 최남선을 무수히 접촉하시었고, 주로 학생의 조직과 동원을 맡았습니다.

선생님은 동경에 있던 평생 동지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와 연락하면서 2·8 독립선언서 인쇄에 필요한 한글 활자와 자금을 보내고 거사지침을 상의하였습니다. 중앙학교 숙직실을 중심으로 비밀 연락을 하던 최린은 천도교를, 현상윤은 김도태를 통하여 정주의 이승훈을 접촉하여 거대한 천도교 및 기독교세력과의 합동을 성취했습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33인만이 민족대표로 서명했으나 제2진, 제3진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추진주체인 선생님 등은 서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일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함께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르셨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3·1독립운동의 거사를 도모하고 추진한 국내지도자들을 33인과 48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대우함은 독립투쟁의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기념사업에는 고하선생을 중심으로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의 첫 횃불을 올린데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극소수의 지도자가 주도한 것처럼 민족저항의 역사를 잘못 서술하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하선생기념사업회는 매년 국경일과 고하선생님의 관계일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동상과 창동3사자동상, 그리고 이곳 독립유공자묘역의 묘소에 참배 및 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고택과 고하선생기념관의 관리 등은 송진한 관장이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하선생님께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망국의 설움을 품고 소싯적에 학문을 닦으셨던 전남 장성 백양사 입구와 청류암 앞에 안내판을 세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공동으로 2021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였는데, 송진우 선생께서는 8월의 일장기말소사건의 주역인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기관에서 선생의 희생과 공훈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고하송진우전기(독립을 향한 집념)를 증보발간함으로써 미래 애국의 주역인 청소년 및 국민들에게 민족의 얼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권이혁 이사님, 김상하 이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그동안 재단을 위해 헌신하신 것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명복을 비웁니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남시욱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추모사를 해주실 양홍준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이은선 안양대학교 교수님께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5월 7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